

진리는 아름답다

외국 여행을 하면 늘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는게 두 가지가 있다. 외국 사람들의 옷 차림이나 찬란한 도시 문화 기관이 아니다. 애달만큼 부러운 것은 남의 나라의 산과 길이다.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본 유럽의 여러 나라, 몇군데의 예외가 있지마는 모두가 푸른 산과 알뜰하게 가꾸어 놓은 길들이 눈에 띈다.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시 상공에서 내려다 볼 때 어찌면 이렇게도 푸른 산림이 이처럼 잘 가꾸어질 수 있을까 하고 감탄을 연발했던 것이다.

흔히 서구 사람들은 자연을 극복하고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자연을 극복한다는 서구인들이 자연을 가꾸는데 한발 앞서고 자연을 숭배한다는 동양이 오히려 자연을 혹사하는 기현상을 본다. 자연을 아끼고 가꾸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길도 마찬가지로. 길은 사람이나 차의 교통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은 한 국가의 질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교회가 공장을 짓거나 생산을 할 수 없으며 군사행동이나 정치행위를 직접해 나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교회가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길을 닦고 나무를 심어 가꾸고 키운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일인지를 잘 아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에서 가족 계획 사업을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책임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인구를 조절함으로써 식량 문제, 도시화 문제, 나아

가서는 인권 문제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키우고 아끼고 가꾸는 것은, 산에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길을 닦아서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다룬다. 기계도 함부로 다루어서 슬한 사고를 낸다. 그 뿐이라 사람을 함부로 다룬다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상상력을 가지고 자연을, 기계를, 인간을 키울 줄 알게 되었으면!

결국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길 밖에 없다. 감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리의 미학문이다. 진리의 미학이 없는 나라는 모든 차림새가 살벌하다. 아무렇게나 마구 지어놓은 고층 건물은 역시 진리의 미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집 앞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생활 환경을 정리한다는 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는 진리를 고매한 이념이나 서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찾아야겠다. 참된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물 한 방울을 아끼고 키우고 가꾸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강산이 아름다워지고 산천에 윤기가 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우리 산천은 너무 삭막하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아름다움과 윤기가 없다. 진리는 아름답다. 진리의 미학이 무뎠히 아쉽다.